

Paris 통신 - 8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일 부러운 것 중 하나는 노천 카페에서 한가롭게 차와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 대학의 ‘술밭식당’을 가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야외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기분은 정말로 좋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 노천 카페에서 차 마시며 담소를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유달리 여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호사를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길들이 너무 좁아 도로상에 의자들을 갖다 놓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둘째, 길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길 밖으로 나와 앉을 엄두가 안 나는 경우도 많지요.

Paris는 노천 카페의 도시라 불려도 될 만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길 가다가 지친 다리를 쉴 겸 아무 데나 들어가 앉으면 기분이 그만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음료만 시키기 뭐해 디저트까지 시키고 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뱃살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야 뱃살 부담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테지만요.

두 번째 사진은 그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의 Fouquet 카페입니다. 사르트르도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사색을 했다는군요. 그 카페 입구에는 낡아진 판을 깔았는데, 그 위에는 거길 찾은 수많은 명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읽어 보니 연예인이 많더군요. 유명한 대신 가격은 혹독하게 비쌌습니다. 하기가 커피가 비싸 보았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마는.

나는 실속을 택해 맨 아래 사진에 있는 Ladurée라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 카페도 Fouquet 못지 않게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그 카페 간판 아래서 술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Ladurée에서 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 10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앉고 나서는 주문하는 사람 만나는 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사진을 잘 보면 손가락 두 개를 보이고 있는 남자 보이시요? 두 사람 자리를 달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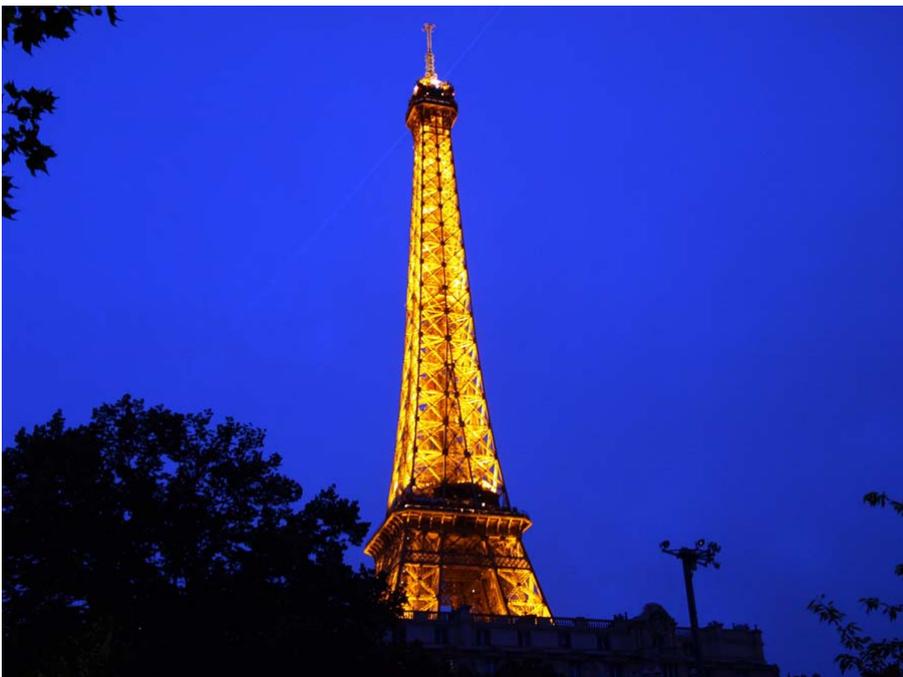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면 빨리 주문 받고 빨리 배달해 turn-over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웨이터들은 천하태평으로 자리에 앉은 손님을 그대로 방치해 두더군요. 내가 그 카페의 매니저로 취임하면 매상을 당장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빠릿빠릿한 웨이터 인력이 필요하지요.)

그 카페뿐 아니라 Paris의 모든 곳에서 엄청난 slow pace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처럼 ‘빨리빨리’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있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답답한 광경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지만, 프랑스는 한 술 더 뜨더군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프랑스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쓸모없이 서두르고 사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밖에 나가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새삼스레 돌아볼 기회가 생기더군요.

Paris 통신 - 9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ris를 대표하는 landmark가 뭐냐고 물으면 에펠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쪽에서도 에펠탑을 Paris의 상징으로 삼는 홍보 전략을 쓰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토록 많은 유적들이 있는 도시의 상징물이 고작 철탑이라?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요.

사실 에펠탑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반대한 사람이 많았다더군요. 높은 철탑은 Paris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게 분명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지어놓고 보니 그런대로 Paris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을 하고 보니 좀 후회되는군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도 사업이 끝난 후 그런 평가가 나올 거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 봐서요. 그 사업 추진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든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버릇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내가 보기에 에펠탑은 정말 멋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맨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Paris 시내 어디에서든 잘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주위의 고전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내 생각으로는 탑의 색깔을 갈색으로 선택한 것이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은색이나 붉은 색으로 칠해 놓았으면 흉물스러웠을 텐데, 그 연한 갈색이 매우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사람의 세련됨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색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농촌에 가면 붉고 푸른 지붕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유럽에서 보는 세련된 색조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붉고 푸른 유치한 색 대신 세련된 색을 쓰는 데 돈이 크게 더 들 리도 없습니다. 그런 유치한 색깔로 통일하려 했던 정치가, 관료들의 세련되지 못한 감각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 유치한 색깔을 볼 때마다 새마을운동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Paris를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찍은 야경입니다. 유럽은 해가 늦게 지는 바람에 야경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시가 되어도 흰하니까요. 그 날은 마음 먹고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마음 먹고 시내로 다시 나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탑인데도 밤에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내가 Paris 몇 번 가 보았다고 너무나 친 프랑스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그들의 세련된 감각을 한 번만 더 칭찬할게요. 풍피두센터를 보면서도 에펠탑을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쇠파이프, 유리, 콘크리트로 지었는데도 멋진 예술 작품이 되었네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감각이지 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Paris는 규제가 심해 자기 집 페인트 색깔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라는군요. 그만큼 도시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서도 에펠탑이나 풍피두 센터 같은 과거으로 도시의 멋을 더 크게 만드는 센스를 발휘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의가 없으시죠?

Paris 통신 -10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난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과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주요한 이유는 내가 그런 과목을 잘 못한다는 데 있었지요. 그 세 과목은 점수가 70점대를 넘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과목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중간고사에서는 곧잘 하다가도 그것들이 포함되는 학기말고사에서는 평균이 뚝 떨어지는 수모를 겪곤 했지요. (당시에는 어리숙해서 그 과목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해 성적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내 탓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과목들이 매우 쓸모있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이나 미술 시간에 단 몇 시간의 이론이나 공부한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공부가 없었던들 인상과니 입체과니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입시 위주로 교과목을 다시 짜는 고등학교에 대해 분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내 미술사 지식이 어줍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맨 위의 그림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밀레의 ‘이삭줍기’입니다. (이건 Musée d'Orsay에서 찍은 거지만, 내 단골 이발소에 늘 붙어있던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점이 돋보이는 그림이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림은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잘 알고 보니 그 그림에는 무척 강한 사회 비판의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너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수확하고 난 빈 땅에서 가난한 아낙 세 명이 이삭이라도 줍자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풍경이라는 해설이 있더군요. 그 해설을 읽고 그림을 다시 보니 정말 다른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미술사 지식이 어줍지 않아 ‘사실주의’ 라는 걸 전혀 잘못된 시각에서 이해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실주의가 그저 현실을 사진 찍듯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내자는 것이었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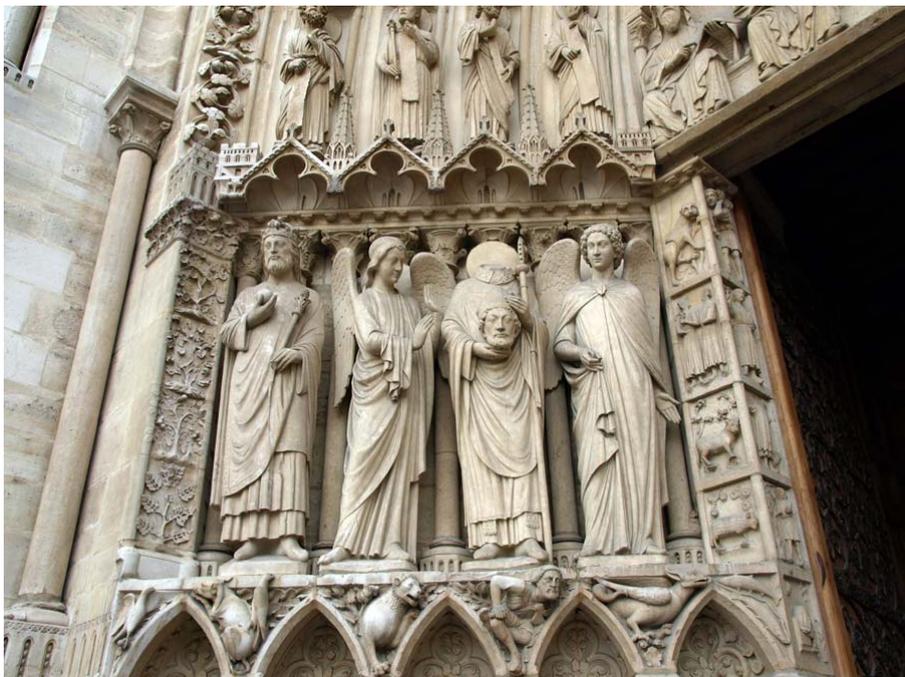
그 전의 화가들은 유토피아에서나 나올 풍경을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나 그렸습니다. 그게 무슨 예술이냐,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 아니냐는 반발로 시작되었다는군요. 그리고 그 현실이란 것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어두운 측면이 강했지요.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현실 비판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실주의자 꾸르베의 그림들을 보니 비로소 뭔지 알겠더군요.

이왕 무식이 폭로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풍피두 센터에서 찍은 것인데 minimalism의 대표적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캔버스를 오렌지색 혹은 푸른색으로 몽땅 칠한 것이 어떻게 명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캠퍼스 전체를 먹물로 칠해 풍피두 센터에 걸어달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요?

사진에 어른어른 비치는 것은 그림이 그런 게 아니라 유리에 비친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는 오렌지 색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왼쪽 것은 그야말로 푸른색 한 가지뿐입니다. 내 불만은 화가들이 자기네들만의 클럽을 만들고, 이것은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말하면 명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B양, 내 무식을 용서해 주게.) 그러나 세계 유명 미술관을 돌아다닐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기에 한 번 말해 보았습니다.

맨 아래 사진은 풍피두 센터의 분수광장 모습입니다. 멋진 예술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즐거움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 분수광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도 이런 멋진 공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Paris 통신 - 11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ris에는 이곳저곳에 유서 깊은 교회들이 널려 있지만 그 중 백미는 단연 Notre Dame 사원입니다. 작년에 Paris 2박 3일로 들렀을 때 이걸 보질 못해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가서 원 없이 사진 찍었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맑아 만족스러운 사진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교회 앞에서 대충 훑어 보고 사진 찍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건물 앞의 조각상들을 유심히 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찬찬히 뜯어 보았는데, 입구 왼쪽 편에 아주 재미있는 조각상 하나가 보이더군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목을 들고 있는 사람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기독교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생 드니(St. Denis)입니다. 무식한 나는 생 드니 하면 그저 Paris 교외의 축구장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생 드니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얘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생 드니는 로마가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의 주교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억압했고, 이에 불복하는 생 드니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형 장소는 몽마르뜨르 언덕 꼭대기로 정해졌는데, 그를 호송하던 로마 병사가 걷기 귀찮아져서 언덕 중간쯤에서 처형하기로 결정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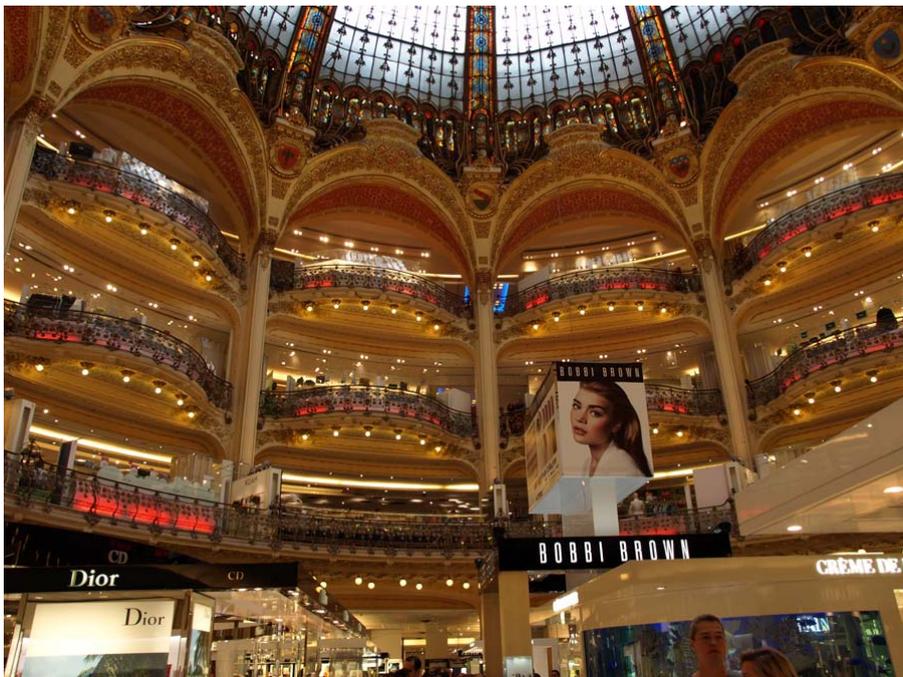
로마 병사가 칼을 들어 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이 잘려 쓰러졌던 생 드니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 머리를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샘이 있어 거기서 머리를 깨끗이 씻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4마일을 걸은 다음에야 그는 다시 쓰러졌다고 합니다.

Notre Dame의 전면에 새겨진 그의 모습은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생 드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그가 처형되었던 몽마르뜨르 언덕에 세워진 그의 석상입니다. (이것 찾느라고 꽤 애먹었던 기억이 나

네요.)

신라시대 이차돈의 기적과 비슷한 것이 프랑스 땅에서 일어난 셈입니다. 그 기적을 본 프랑스 기독교인은 믿음이 더욱 굳어졌겠지요. 종교에서는 이런 기적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말이지요. 비록 교회도 절도 나가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경건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Paris 통신 - 12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서 제일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아이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건들을 어떤 가격에 파는지 돌아다녀 보는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호기심

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너무 고상하게 치장하는 것일 테고, 선천적으로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테지요.

맨 위의 사진은 상젤리제 거리의 루이 뷔통 매장입니다. 모두 돌아다녀 보진 않은지라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뷔통 매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두툼한 지갑을 가진 쇼핑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고객들의 국가별 통계를 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단연 많구요, 귀에 익은 우리말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야, 이거 생각 밖으로 썬데.”

“이건 한국에 없는 신모델이야.”

인구 비례 가장 높은 비율의 대표를 보내고 있는 나라는 단연 Republic of Korea 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Lafayette 백화점입니다. Paris의 백화점답게 내부도 아주 고색창연합니다. 그러나 물건들은 별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되어 있지 않아 늘 후덥지근하구요. 서울의 일류 백화점에 비하면 상당히 촌스럽다는 느낌을 주지요.

이 백화점에 얽힌 화가 Picasso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27년 중년의 Picasso는 이 백화점에서 17세 소녀를 만나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아가씨, 아주 흥미로운 얼굴을 갖고 계시군요. 내 모델이 되어 주실래요? 난 Picasso예요.”

“누구시라고요?” (이런 반응을 들었을 때 Picasso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 후 Marie-Thérèse Walter라는 소녀와 Picasso 사이에는 아주 이상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지요. 얼마 후 그 소녀는 Picasso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옆으로 이사왔고, 셋 사이의 삼각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Maya라는 이름의 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는 묻지 말아 주세요.)

Picasso는 그녀를 모델로 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아시듯, 그의 그림에는 많은 소녀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세 번째 사진의 그림은 아예 그 제목이 Marie-Thérèse Walter입니다. Picasso가 특히 그렇지만, 우리 범인의 머리로는 예술가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습니다.

내가 아이 쇼핑 장소로 특히 좋아하는 것은 재래시장입니다. 백화점이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그 나라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은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재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 안내서에는 명품숍만 많이 나와 있지 재래시장에 대한 안내는 별로 없습니다. 누가 Paris까지 가서 구질구질하게 재래시장이나 돌아다니겠느냐는 심산이겠지요. 반면에 미국 관광 안내서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문화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Paris의 재래시장은 너무 점잖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고기를 파는 노점들이 몇 있는 것이 눈에 떨 뿐 다른 부분은 여느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는 심정으로 재래시장을 아래, 위로 누비고 다녔습니다. 재래시장의 또 다른 맛은 시식에 있습니다. 사탕 입힌 땅콩 시식을 하고 맛있어서 사왔더니 우리 집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팩 더 사오는 건데.

Paris 통신 -13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Paris라 하면 Sorbonne을 빼놓을 수 없지요. 과거 이 대학은 영국 Oxford, Cambridge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서 깊은 명문이었지요. 평등화를 위해 Paris 대학의 일부로 편입되어 옛 명성은 사라지고 없지만, 명문의 흔적은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부잣집은 망해도 얼마를 더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의 사진을 보면 19세기 과학문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때 Sorbonne이 그 선두에서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왼쪽의 건물이 바로 Sorbonne인데, 고색창연한 천문대와 다른 관측시설이 그런 전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Sorbonne 주변에는 나를 주눅 들게 만드는 이런저런 광경이 많았습니다. 우선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그저 그런 문방구인데 상호가 그 위대한 이름 ‘데카르트’ 아닙니까?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Sorbonn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봐 주세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잔디밭인데, 거기에는 ‘미셸 푸코 광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사진을 보세요. Sorbonne 정문 앞에서 찍은 것인데 몽테뉴의 작은 동상입니다. 이들이 우리 정신세계의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그런 위대한 문화적 전통이 부럽기만 했지요.

그런데 몽테뉴 동상의 발끝을 보면 노랗게 빛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길 찾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질러서 그런 겁니다. 아마 거길 문지르면 복이 온다는 소문이 있는 게지요.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녀 보면 꼭 그런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Princeton에서는 Woodrow Wilson School에 있는 Wilson 대통령의 토루소, 그리고 고등과학연구소에 있는 Einstein 토루소의 코끝이 바로 그런 문지름의 대상이지요. 물론 나도 Wilson과 Einstein의 코끝, 그리고 몽테뉴의 발끝이 노란색으로 빛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Sorbonne에 대해 한 가지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수위들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세계 명문 대학 많이 가봤지만 대학에 일반인 출입을 금하는 것은 Sorbonne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명문도 아니고 평범한 Paris 대학의 일부인데요. 물론 관광객이 많이 몰려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방학 중이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면 일반인을 입장시킬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그 쓸모없는 권위주의에 상당한 반감을 느끼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Paris 대학 못지 않은 명문 Seoul National의 교수인데 말입니다.

Sorbonne에 가본 사람들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곳이 하나 있더군요. 그것은 Collège de France 라는 곳인데 Sorbonne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학자로서 거기 교수로 뽑히면 무상의 영광이라고 하더군요. 거긴 석학 중의 석학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Paris 가면 여기 놓치지 말고 보세요.

Paris 통신 -14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 한 가운데로 수로가 나 있으면 늘 Venice에 견줘, ‘어디의 Venice’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도시도 Venice처럼 만든다고 홍보를 하더군요. 애당초 농지 조성을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사과 한 마디 없이 갑자기 산업,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검은 속마음을 알고 우리들이 그 사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오늘 소개하려 하는 Bruges라는 도시도 ‘the little Venice of the North’ 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Brugge라고도 불리는 이 도시에는 중심부로 운하가 여러 가닥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 중심부의 Markt라는 지역에 가보면 맨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예쁜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톱니 모양의 지붕이 Flanders 지방 집들의 특색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프랑다스의 개’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오는 듯 예쁜 모습이지요?

그 광장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노천 카페가 있어 다리를 쉬고 가기에 좋습니다. 광장 주변의 예쁜 건물들, 그리고 광장을 거니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핫초콜렛 한 잔을 먹는 기분은 여간 좋지 않았습니디. 그 날 날씨는 거의 추울 정도였구요.

거길 갔으니 보트 관광을 뺄 수 없겠지요? 맨 아래 사진은 보트를 타고 찍은 겁니다. 물론 Venice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규모가 1/10도 안 되게 작았지만,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광경이 많더군요.

서울시에서 중랑천 부근을 개발해 ‘서울의 Venice’ 를 만들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소로운’ 일이지요. 물길만 파면 다 Venice가 되나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볼 게 있어야 할 텐데요. 중랑천 부근의 공장이나 아파트 보러 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은 요즈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전생에 배와 무슨 한이 맺혀 있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경인운하도, 4대강사업도, 중랑천도 입만 열면 유람선 띄운다는 얘 기입니다. 전생에 무슨 한이 맺혀 그리도 유람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 탓에 멀 쩍한 산하가 불도저 날 밑에서 신음하게 되었지요.

Paris에서 Bruges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나 가는 꽤 먼 길입니다. 그곳은 명색이 벨지움 땅이니까요. 오가는 데 8시간이나 걸렸는데, 막상 관광에 쓴 시간은 4시간도 못 됩니다. 그 래도 한 번 가볼 만하다고는 생각되네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너무나 예쁜 마을이라서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네요.

거기는 자수, 초콜렛이 유명하다 해서 관광객들이 한 보따리씩 사갑니다. 우리 버스에 동승한 태국 여성도 자수 상품을 한 보따리 사갔고 왔습니다. 방석 커버나 테이블 보 같은 것 말입니다.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산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다가 ‘Made in China’ 라는 상 표를 보고 아연실색하더군요. 위대한 중국 상품이 거기까지 토산품을 가장해 들어온 것이지 요. 여러분들 유럽이라도 믿지 마세요.

벨지움하면 ‘와플’ 도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닌 끝에 괜찮게 보 이는 집에서 와플을 하나 사먹었지요. 그러나 비싼 돈 내고 사 먹은 와플이 우리 자하연에 서 파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공연히 비싼 돈 내고 벨지움 가서 사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자하연에서 사먹으면 됩니다.(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살 찌니 까 적당히 먹어야 하겠지요?)

한 마디 더 해야 하겠네요. 우리를 인솔한 프랑스 사람 관광 가이드는 왜 따라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영어도 서툴고 지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작년에 함께 갔던 우리 가이드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에 속했습니다. 왜 유럽 사람들은 모든 게 그리도 어수룩한지요? 미국에서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빠리빠리 하기로는 우리나라 사람 당할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